

김정은 시대, 통치 공간의 형성과 그 전략들 수령제 국가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혼종화*

김지니**

통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선점한 정치 집단이라면 인민대중은 자신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집단의 힘을 모의하고 탐색하는 정치집단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회를 만들어 가는 통치 권력과 인민대중의 상호연관은 필연적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북한 정권에 의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졌던 통치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다른 관점의 해석 역시 필요하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때로는 새롭게 발견되는 공간들은 이들 북한의 지도자가 인민대중의 '힘'과 '역동성'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움직인 결과물이다. 특히 김정은은 빨라진 북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같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인민대중의 역동성, 능동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숨겨져 있었던 주도권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시대의 공간은 독자적 유일체계로 작동되는 자부심 어린 국가성과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보편적 국가로의 열망이라는 인민대중의 시대적 욕망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더욱 혼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인민대중, 김정은, 혼종화, 공간, 북한

* 이 논문은 2022년도 <민화협-롯데장학재단 공동주최 신진연구자 학술지원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원.

1. 들어가며

아무리 강력한 통치 권력도 대중의 자발적 지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대중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통치 권력이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졌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독재자들조차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했다. 절대적 권력의 강력한 통치술로 유지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해방 직후 국가적 기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주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분열되고 있었던 1970년대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북한식 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마침내 1990년대 ‘북한식 사회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체제를 지켜 낼 수 있었던 것 역시 인민대중의 자발적 헌신과 열성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언제나 체제의 기반이 되는 인민대중을 포섭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였다. 김일성 시대의 ‘이민위천’, 김정일 시대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와 같은 전략적 정치구호는 인민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며 내놓은 통치 권력의 적극적 구애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단순한 구호에만 기댔던 것은 아니다. “개인적 관점이나 이데올로기 또는 강령은 광범위한 계층에 퍼져 있는 대중들의 평균적 성격구조에 조응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¹⁾”¹⁾다는 점에서 인민

1) 빌헬름 하이리(Wilhelm Reich), 『파시즘의 대중심리』, 황선길 옮김(서울: 그린비출판사, 2006), 73쪽.

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제적·구체적 방법을 모색하였다. 실제로 기어츠(Clifford Geertz)가 ‘극장국가(theater state)’라는 개념을 등장시킨 이후, 최근 연구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이 물리적 강제력보다 상징과 의례를 통한 “권력의 정치적 사회화와 문화적 재생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민의 자발적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근본적 기제라고 강조한다.²⁾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정권의 영속성을 해석해 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런데 상징과 의례가 인민의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 내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기제로서 작동한다면, 그러한 상징과 의례가 인민들에게 실체화되어 작동하고 그들에게 체험을 통해 내재화되는 물리적 토대인 ‘공간’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상징과 의례라고 하는 핵심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정확한 인식을 보여 줬지만 좀 더 세밀한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공간은 특정 사회의 생산물이면서 또한 구성원들을 자극하고 독려하여 그 사회의 정체성을 주조하는 생산자³⁾이기 때문에 상징과 의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형식을 포함하여 통치 권력의 지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북한의 공간들은 당대 정권의 지향과 국가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담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민대중은 통치 권력에 의해 기획된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권의 통치 전략을 내면화하게 된다.

김정일에 이어 정권을 세습한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한

2)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2010), 2쪽.

3)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공간을 생산물이자 생산자이고, 또한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토대라고 주장하였다.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서울: 예코리브르, 2014), 27쪽.

2012년의 북한은 시장화·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인민대중의 이데올로기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도, 자신의 시대를 제대로 열어 줄 국가 동력을 획득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김정은이 내세웠던 것은 ‘경제강국건설’을 통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이었다.⁴⁾ 그리고 이 공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바로 ‘사회주의 선경(仙境)’으로 꾸려질 ‘공간’이었다. 공간을 통해 자신의 국가 비전을 분명히 보여 주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2012년 12월 채택한 「도시미화법」을 비롯하여 이듬해인 2013년 5월에 채택한 「공원, 유원지 관리법」 외 김정은 집권 이후 채택된 공간 관련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을 자신의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김정은의 전략은 정치적 위기에서도 작동했다. 집권 초기, 2016년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패 등 대내외적 위기 때마다 김정은은 적극적인 공간(재)구성을 통해 인민대중의 재결집을 시도했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 선택되었던 공간은 선대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선택한 공간들이 백두혈통 계승의 강조를 통해 권력의 절대성을 담보해 내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김정

4)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 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2010년 1월 1일.

은의 국가발전목표인 사회주의 문명국⁵⁾이라는 보편성·정상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선택한 공간의 혼종화 전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 공간은 금수산태양궁전, 려명거리, 그리고 김일성 광장이다. 이 공간들은 각각의 정권에서 탄생했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인민대중에게 정권의 정당성과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던 대표적인 공간이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상징⁶⁾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금수산태양궁전, 려명거리, 김일성 광장이라는 상징적 공간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의 통치 전략을 해석하는 중요한 경로가 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공간의 재해석은 북한 정권과 인민의 복합적인 상호관계성을 들여다보고 북한 사회를 지탱해 준 정치적 생명력을 새롭게 해석해 낼 수 있게 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물론 최근 들어 북한의 공간을 공간 구성의 관점에서, 또는 각 공간의 특성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⁷⁾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

-
- 5) 사회주의 문명국은 객관적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인민대중의 실질적 삶을 향상시키고 다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보편적 국가를 만들겠다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가 비전이다.
 - 6) 정일영은 북한이 도시의 팽창을 자본주의적 폐해로 비난하며 ‘작은 도시’를 추구해 왔지만 평양만은 국제도시로 ‘거창하게’ 건설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정일영, 『평양 오디세이』(서울: 민속원, 2022), 15쪽.
 - 7) 북한의 공간, 그리고 공간 구성의 특징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공간을 통치 권력의 통치술로 분석한 연구로는 전상인·김미영·조은희(2015)의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안창모(2020)의 “역사도시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화 과정: 도시구성과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이종겸·정현주·김희정(2021)의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북한의 권력에 관한 연구: 1953~1970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성립 시기를 중심으로”, 이윤하(2010)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기 북한건축의 특성 연구”, 홍민(2017)의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등이 있다. 공간을 통치 권력의 통치 전략으로만 해석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공간과 인민대중의 상호관

선 지 1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는 지금에도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지향성과 실천 이데올로기 그리고 구체적 정책들이 인민대중의 기대, 의지와 함께 작동하며 상징적 공간을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통치 권력이 설계한 그 사회의 국가 담론, 정치 지향,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고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과 통치 권력, 그리고 인민대중이라는 삼각관계의 연관성에 대한 천착은 특정 사회와 통치 권력의 생명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⁸⁾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상징적 공간들이 ‘혼종화’⁹⁾되고 있다

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성경(2019)의 “평양 도시 건설 스펙터클에 관한 소고”, 황진태의 “‘평양의 강남’은 어디인가?”(2020),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에 대한 도시주의적 분석”(202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북한의 통치 권력과 공간의 탄생이 맺는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인민대중이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공간 기획이 빠르게 변화·성장하고 있는 인민의 시대적 요구에 대응·부응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간, 인민대중, 통치 권력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8) 이현재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주장한 공간의 특성에 동의하면서 “권력의 형태로 기능하는 지식의 과정이나 권력의 효과를 포착”(Foucault, 1980: 69; 푸코, 1991: 100)해 내는 데 있어서 공간이 통치 권력과 대중의 관계를 읽어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재, “다양한 공간 개념과 공간 읽기의 가능성: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3권 4호(2012), 230쪽.

9) 이 논문에서 제시된 혼종화는 ‘혼종성’, ‘양가성’, ‘모호성’ 등 최근 북한연구에서 주목하는 키워드와 연관되어서 고안된 방법론적 개념이다. 여기에서 혼종화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사회·문화적 의미로서 고이치 이와부치(Iwabuchi Koichi), 마완 크레디(Marwan Kraidy)가 주장한 문화적 혼종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해 내는 학술적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선 혼종화는 고이치 이와부치가 정의한 정체성

는 전제 아래 김정은의 국가지향과 혼종화된 통치 공간의 형성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이 최고의 성지이자 인민의 공원으로 혼종화되는 방식, 사회주의 선경이자 수령의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려명거리, 정치적 령도의 공간이자 친인민적 축제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김일성 광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혼종화된 공간에 기반을 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전개될 김정은 정권의 향후 통치 전략을 전망해 본다.

2. 김정은의 국가 지향과 혼종적 통치 공간의 형성

1) 금수산태양궁전: 최고의 성지이자 인민의 공원

2012년,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후계 승계를

의 이중성, 경계성, 중간성에 도달하는 문화적 혼종성의 과정과 연결된다. 동시에 마완 크레디가 주장한 글로컬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초국가 미디어 기업들의 지역화 전략이 갖는 특성도 내포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서 두드러지는 혼종화는 특히 공간과 결부되어 구체화된다. 김정은 시대 공간의 혼종화는 고이치 이와부치, 마완 크레디가 전제로 하는 문화적 혼종화가 탄생되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배경과 달리 수령제라는 독특한 북한 체제와 정상국가화라는 국가발전목표가 그 탄생 배경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탄생 배경이 독특한 공간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 공간의 혼종화라는 개념은 문화적 혼종화라는 기존의 개념과 차별적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간의 혼종화를 기존 공간의 정체성에 김정은의 국가 지향 및 통치 전략이 결합하여 복합적 정체성과 나아가 다중적 기능을 가지며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김정은이 재구성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 상징적 공간들은 지금도 불규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가 가해지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하지 못한 채 김정은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했다. 국제 사회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새 지도자가 가져올 파장에 예의 주시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예상과 달리 자신의 단점일 수도 있는 젊은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며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은 현지지도였다.¹⁰⁾ 2012년 7월까지 세 차례나 방문¹¹⁾한 능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하여 문수물놀이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¹²⁾, 은하과학자거리 등과 같은 건설현장의 현지지도에 나선 김정은은 직접 놀이기구를 타거나, 옷옷 단추를 풀고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김정은이 자신을 적극적이며 친인민적 지도자로 강조하기 위해 활용한 ‘스킨십 정치’¹³⁾는 선대에 비해 정치적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안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정권 초기에 신속히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세력이 부족한 지도자에게 인민대중의 지지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친인민적인 지도자상을 통해 민심을 얻는 것만으로는 지도자 김정은의 정치적 생명력이 보장될 수 없었다. 국가의 지도자는 인민대중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위한 국가 동력을 만들어 내고 또한 성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끊임

10) 김정은은 2011년 후계 구축 시기 86회였던 현지지도를 2012년, 집권 직후에는 125회까지 늘리고 인민대중과의 직접 대면을 확대했다. 김일성의 평균 현지지도 횟수가 27.4회(1957~1994), 김정일이 87.2회(1994~2011)에 비해 확실히 많은 횟수이다.

11) 베일에 싸여 있었던 리설주는 2012년 7월 25일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장에서 처음 존재를 드러내어 김정은이 이 공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짐작하게 했다.

12) “우리는 이렇게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해간다.” 『로동신문』, 2013년 6월 20일.

13) 박정하, “북한 역대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특성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18~120쪽 참고.

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김정은이 내놓은 국가 비전은 ‘김일성 조국’을 넘어설 수 있는 김정은식 정상국가, 즉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¹⁴⁾는 ‘사회주의 문명국’이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2년의 신년공동사설에서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새 시대’의 국가발전목표를 언급했으며 나아가 2013년 신년사를 통해 자신의 국가발전목표임을 공식화했다. 자신이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한 국가 비전의 성패는 곧 자신의 정치적 평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국가발전목표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의 동의와 지지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인민대중의 신뢰가 아직은 부족한 권력 과도기였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신의 국가발전목표와 함께 강력한 실천 동력이 되어 줄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김일성-김정일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통치 전략이자 인민대중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라는 신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공간, 즉 백두혈통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특수화된 공간이자¹⁵⁾ 동시에 정상국가

14) “신년사 김정은,”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15) 김정은은 ‘계속혁명’을 계승할 후계자, 즉 수령영생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을 인민대중에게 강조 및 각인시키기 위해 39년 만에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자신의 정치 실현에 맞게 수정하고, 직접 공표하였다. 김창희, “북한의 백두혈통을 위한 역사 만들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1호(2017), 170쪽 참조.

로서 사회주의 문명국의 면모를 함께 보여 줄 수 있는 보편적 공간으로 기획된 금수산태양궁전이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정일 정권이 1994년까지 김일성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금수산의사당을 김일성 사후인 1995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재개관한 공간이었다. 이는 문화적 기억·사회적 기억이 재생산되는 ‘영원성(quasi-éternité)의 헤테로토피아’¹⁶⁾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혁명의 기억이 세대를 거치며 희미해진 가운데 경제적 위기까지 겹치며 당면한 김일성 사망은 김정일의 완전한 권력 계승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공간을 통한 ‘기억정치’¹⁷⁾였다. 통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재구성된 기억은 과거 정권이 강조했던 이념과 가치를 미화하고, 그들이 이루었던 성과를 과장하여 정권을 계승한 현재의 권력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김정일에 의해 재설계된 금수산기념궁전은 각종 기념일에 국가적 의례가 거행¹⁸⁾되는 ‘의례공간’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되면서 인민대중의 문화적·사회적 기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제 금수산기념궁전은 김일성에 대한 만들어진 기억을 집약하고 극대화하여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김일성 사후에도 ‘김일성주의’가 영원불변하는

16)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54쪽 참조.

17)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1호(2021), 80쪽.

18) 서경원은 죽음의례를 상장례와 제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상장례는 일회적 의례로서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고, 제례는 주기적·반복적으로 망자와 산자의 관계를 지속시키며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 가는 의례의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서경원, “죽음의례의 문화적 기억과 정동의 배치: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죽음 기억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24권 4호(2021), 43쪽.

“공동체 안”의 “위계나 질서, 가치의 체계”¹⁹⁾로 작동할 수 있게끔 재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김정일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32개의 전설·이야기가 수록된 총 5권의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을 발간하여 김일성을 절대적 지도를 넘어서 신적 존재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공간 이야기’²⁰⁾로 확장시켰다.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은 선대의 이러한 공간 활용 전략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이하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²¹⁾되면서 ‘금수산기념궁전’은 이제 ‘두 개의 태양을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격상되었다. 김정은이 전설적 공간, 성지로만 강조되었던 공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수령이라는 특별한 존재 자체를 법적·제도 안에서 공식화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세습을 통해 3대 수령이 된 김정은 자신의 실존적·정치적 조건과 보편적인 정상국가로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19)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80~81쪽.

20) 진은진은 전설이라는 만들어진 이야기는 진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전설에 역사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등장하거나, 또는 관련된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전략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진은진, 「전설의 현대화와 공포의 전략: 군대괴담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8집(서울: 동양고전학회, 2017), 441쪽.

21) “토론자들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결정에 접하여 무한히 격동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안과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심의채택하는데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그림 1〉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김정일 석고상 변신



자료: 연합뉴스, “北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김정일 석고상 변신,” [https://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10596](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10596)(검색일: 2022.9.18.).

〈그림 2〉 천연색으로 처리된
금수산태양궁전 내 김일성·김정일 동상



자료: 연합뉴스, “북한,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김정일 동상 ‘컬러’로 교체,” [https:// 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71695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716954)(검색일: 2022.9.18.).

했던 김정은식 통치 전략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백두혈통의 정통성²²⁾과 사회주의 문명국의 실체를 동시에 담아 내고자 했던 금수산태양궁전은 두 가지 목적의 취지를 보여 주는 공간으로 혼종화되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공간의 혼종성은 독특한 사회특성을 보여 주는 엄숙한 의례공간으로 작동하는 금수산태양궁전 건물과 보편적 정상 국가에서 발견되는 ‘공원’으로 만들어진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통해 이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수산태양궁전의 건물은 강력한 종교성(religiosity)과 통치성(governmentality)이 보다 선명하게

22) 김창희는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의 지속성을 ‘혁명전통계승론’에서 찾는다. 이러한 혁명전통계승론은 혁명전통의 계승을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에서 시작해서 선군혈통의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조선의 혁명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때 이러한 혁명의 계승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백두혈통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김창희, “북한의 백두혈통을 위한 역사 만들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1호(2017), 147쪽.

〈그림 3〉 2011년
금수산태양궁전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1년 4월 16일.

〈그림 4〉 2013년
금수산태양궁전 전경



자료: 『로동신문』, 2013년 4월 16일.

드러나도록 보장되었다.²³⁾

예를 들어 금수산태양궁전 건물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비슷하게 재작업한 것과, 거대한 석고 동상을 실물과 흡사한 크기와 색감의 동상으로 교체하는 것 등은 김정은 자신이 백두혈통의 적통이고 ‘영생하는 지도자’의 계승자임을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한 기획이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 김정은이 〈그림 1〉과 같이 김정일 동상의 포즈를 김일성과 같이 뒷짐을 진 자세로 변화시켰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김일성과 같은 ‘태양’의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김정일 역시 김일성에 버금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격상되어야만 곧바로 이어지는 김정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 즉 백두혈통의 정당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었다. 2015년에는 거대한 크기의 석고 동상을 실제 크기의 웃고 있는 천연색 동상으로 교체하였다. 김정은은 편안하게 웃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실제처럼 보여줌으로써 여전히 혁명전통이 살아 있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유일한 혁명전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23) 김정은은 금수산태양궁전법에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라는 부분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경의표시 참가 대상과 옷차림과 몸단장, 그리고 소감표시의 방법을 법률로 제도화하였다.

이렇듯 김정은은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위대함 그리고 절대성을 더욱 강화하는 금수산태양궁전 건물의 재구성을 통해 집권 초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금수산태양궁전 건물이 백두혈통의 신성성, 절대성을 보여 주는 공간 형성 전략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김정은의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국가 지향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는 '친인민적·친현실적 공간'으로의 전략을 취했다. 김정은에 의해 공원화되기 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압도적 엄숙함과 절대적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화강석으로 전면이 조성되어 있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이러한 공간을 친인민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화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는 대형 분수대를 설치하고 잔디와 화초, 그리고 나무들을 심었다.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10만㎡가 넘는 대형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2013년 4월 15일, 태양절에 맞추어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공되었다. 이처럼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공원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던 이유는 선대의 정치적 지향과 공간 스타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공간을 자신의 스타일로 일신함으로써 새로운 지도자의 지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금수산태양궁전과 함께 엄숙하고 권위적이었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이제 태양절, 광명절 등 국가 기념일에 이곳을 찾은 인민대중이 녹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공원으로 재구성되어 김정은의 정치 지향이자 국가 비전인 사회주의 문명국의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다.²⁴⁾

24)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

그러나 북한의 독특한 수령체제와 친인민적·친현실적 공간 기획의 결합이라는 김정은의 통치 공간 형성 전략은 신성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모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공원화는 “태양의 성지의 체모와 성격에 맞게 훌륭히 꾸리려는” 선대 지도자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심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류의 태양을 끝없이 신뢰하며 따르는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그대로 백화로 피어나고 만복으로 우거진 태양칭송의 대화원”으로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김정은의 공간 혼종화 전략은 자신의 주요 지지세력이 될 사람들이 혁명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직접 들었던 세대가 아니라는 시대적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국가를 만들어 갈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기획된 결과물이었다. 이와 같은 혼종적 공간 전략은 UN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한 2016년,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으로 기획된 려명거리에도 적용되었다.

2) 려명거리: 사회주의 선경이자 수령의 공간

김정은 정권이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의미를 담아”²⁵⁾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려명거리’²⁶⁾는 거리라는 일상적 공간으로 확

과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화원이며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펼쳐진 인민의 공원입니다”, “감사문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공원을 훌륭히 꾸리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친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로동신문』, 2013년 5월 1일.

- 25)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로동신문』, 2017년 4월 14일.

장된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간이자 김정은이 지향하는 정상국가의 모습(정체성)을 축약적으로 보여 주는 김정은식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cro District)’²⁷⁾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통치 권력은 강력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데올로기적 공간을 기획해 왔다. 특히 북한과 같이 대를 이어 정권을 이어받는 독특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공간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를 위해 통치 권력이 정성 들여 만들어 온 공간이었다. 려명거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의 위기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설계된 젊은 지도자의 야심 찬 기획으로만 보이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공간의 확산을 위한 김정은의 공간 기획이기도 했다.

2016년 3월, 유엔의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서 대북 경제제재를 담고 있었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가 통과되면서 완전한 정상국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었던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번 위기는 김정은 정권 초기 신속하게 권력을 장악하여 지도자로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냐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대북 경제제재가 실질적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이고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6) 이 논문에서 ‘거리’는 이동하는 ‘길’이라는 개념 외에도 특정한 길을 따라 기획된 ‘공간’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로수길’, ‘태헤란로’, ‘명동거리’ 등과 같은 공간을 말한다.

27) 임동우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의 개념을 주거를 비롯하여 소비·문화·생산·교육·의료 공간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면서 도보 가능 거리를 넘지 않는 규모의 복합용도 단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서울: 효형출판, 2011), 225쪽.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국가발전목표가 구체적 실체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며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인민대중이 또다시 '경제적·정치적 고립'이라는 상황을 바라보며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실망감은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치적 역량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이에 김정은 정권은 대북 경제제재로 유발한 위기를 한 번에 불식시키고 인민대중에게 정권에 대한 확신을 던져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김정은 정권이 내놓은 카드는 바로 국가 발전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다. 려명거리의 건설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놓여있었다. 신도시·뉴 타운 사업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던 선례는 선구적 사회주의 국가이자 앞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던 중국과 러시아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1990년대 모스크바 재건사업(1999년~현재), 베이징 도시마스터플랜(1991년~2010년)이다. 중국, 러시아가 그동안 일관되게 인민대중에게 강조해 왔던 기존의 고착화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벗어나 보다 유연한 경제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이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자극제, 즉 어떤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고 발전한 가시적 실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이 겪을 수밖에 없는 구체제와 신체제에 대한 심리적 괴리를 잘 관리하고 정권이 목표로 한 지점까지 자신들이 설계한 계획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강력한 변화·발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주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신도시·뉴타운 사업은 위기에 봉착한 정권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집권 이후 4년이라는 정치적 역사를 쌓아 올린 김정은 정권은 이제

〈그림 5〉 려명거리 준공식



자료: 『로동신문』, 2017년 4월 14일.

〈그림 6〉 려명거리 준공식



자료: 『로동신문』, 2017년 4월 14일.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할 물리적 역량도 갖추고 있었다. 김정은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행정적·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상태였다.²⁸⁾ 그러나 김정은이 려명거리를 자신의 상징적 공간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림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영생탑 앞에서 진행된 려명거리 준공식에 직접 나와 커팅 행사를 하고 인민대중의 노고를 치하했다. 구체적으로, 려명거리에는 70층, 55층 초고층 살림집(아파트), 다층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여기에는 ‘종합상업구’를 만들어 주거와 소비가 한 공간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인민대중은 려명거리를 통해 TV에서나 보며 선망하던 최신키 고층 주거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나아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에도 좌절하

28) 새 시대’임을 가지적으로 보여 주는 높고 화려한 거리들은 만수대 언덕부터 대동강 기슭을 따라 2012년 6월 조성된 창전거리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에는 미래과학자거리가 ‘대동강반’ 지역에 준공되었다.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는 이 거리가 만들어진 전과 후로 나뉘 정도로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상징적 공간이었다. 북한 기관지인 『로동신문』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면모가 집대성’된 거리이자 ‘로동당시대의 선경’, ‘선경거리’, ‘멋쟁이 거리’라며 이 거리들에 시대적 의미를 부여했다.

지 않고 사회주의 문명국을 만들어 가는 자신들에게 자긍심을 느꼈다. 탁아소·유치원·소학교·중학교 등과 같은 교육공간에는 최신식 보건시설이 설치되었다. 최신식 보건시설은 실질적 기능과 역할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락함, 국가가 세심하게 돌봐 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민대중은 김정은을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동지’이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복돋우며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자’라는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김정은이 이전 통치자와 달리 자신이 고유하게 만들고자 했던 정치권력의 정당성, 지지세력 확보 전략이기도 했다.

려명거리에서 발견되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잘 조성된 녹지공간, 수림과 공원은 사회주의 건축 양식에서 강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²⁹⁾ 그러나 려명거리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균형발전, 도시팽창 억제라는 사회주의 건축 양식의 지향을 담았다기보다는 김정은식 마이크로 디스트릭트의 시현에 가깝다. 려명거리에 조성된 녹지공간은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³⁰⁾을 체감하고 국가 주도의 노동에서 벗어나 충분히 활발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획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려명거리에 만들어진 아동공원과 배구장, 배트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영화관 등과 같은 문화공간은 “인민들이 새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³¹⁾리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문화공간을 통해 인민대중이 자본주의 국가를 넘어서 대북 경제제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국주의자’들

29)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서울: 효형출판, 2011), 50쪽.

30) “신년사 김정은”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31) “신년사 김정은,”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과 대등한 국력과 경제력을 느끼길 바랐다.³²⁾

그러나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국가발전목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이어 나가는 백두혈통의 위대함,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것 또한 중요했다. 김일성이 김일성 광장을 통해, 그리고 김정일이 금수산태양궁전을 기획하여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지도자로 만들었듯이, 김정은에게도 자신을 유일한 지도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신만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공간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려명거리는 김정은의 국가 비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공간이자 동시에 김정은 자신을 유일한 지도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성, 이 두 가지의 고민이 함께 반영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로써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렬하게 보여 주는 이데올로기적 공간은 거리라는 거대한 일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려명거리의 이데올로기성은 ‘려명’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려명’이라는 이름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밝아 오는 아침을 의미하는 동시에 혁명전통의 밝은 앞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2) 이러한 려명거리가 김정은 정권의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에너지 부족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체 기술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려명거리에 전체에 태양열과 지열(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기술(전기절약기술)과 지붕, 벽면에 친환경 녹화 기술(목화기술) 등과 같은 최신 건축 기술을 적용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기획은 김정은 정권이 집권 직후부터 강조해 왔던 과학기술의 성장과 성과를 가지적이고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이러한 기술들은 려명거리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집약체로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녹색건축 기술교류사에서 개발·검증된 음이온발생기능칠감, 도시농업, 에너지를 저장기술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려명거리는 대북 경제제재에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증거이자 본보기였다.

이 외에도 려명거리의 이데올로기성은 그 위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려명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묘지이자 ‘최고의 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부터 수령의 영생을 기원·상징하는 영생탑까지 3km 구간에 위치시켰다. 나아가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에 김정은은 자신의 백두혈통의 위상을 추가로 부여했다. 이를테면 금수산태양궁전 방향은 낮고 아담한 건물들을 배치하여 ‘정중성’을 강조하고, 려명거리의 끝 지점인 영생탑 방향에는 집중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을 배치하도록 하여 ‘상징성’³³⁾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살아 있는 태양’, ‘죽지 않는 절대권력’의 적통이자 계승자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후자를 위해 김정은은 ‘전당적·전국가적·전사회적’³⁴⁾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기록적으로 높고, 독보적으로 화려하며 최첨단의 기술을 투여한 려명거리를 기획했다.³⁵⁾

이렇듯 려명거리는 대북 경제제재라는 대외적 충격을 돌파하기 위

-
- 33) “위대한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힘으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려명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로동신문』, 2017년 4월 14일.
- 34) “위대한 일심단결 자력자강의 불가항력적힘으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려명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로동신문』, 2017년 4월 14일.
- 35)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룡남산을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하자고 …… 무릇 창조물들에는 시대정신이 반영된다. 새 거리들이 일떠설 때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이름마다에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생산과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여왔다. “려명거리,” 『로동신문』, 2016년 3월 19일.

해 설계되면서 언제나 제국주의에 맞서 북한 사회를 이끌어 왔던 백두혈통의 기상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목표인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한 지도자 김정은의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혼종적 공간으로 완성되었다. 김정은은 이 높고 화려한 공간을 완성해냄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권력 과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려명거리에 적용된 치밀하고 계획적인 다양한 기획, 예를 들어 거리의 위치, 이름, 건물의 배치와 높이, 최첨단 건축 기술의 적용 등과 같은 것들이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려명거리가 '사회주의 선경'의 실체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은 이제 두 개의 거대한 통치 전략이 맞물려 만들어진 려명거리를 바라보며 백두혈통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만들어 가는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3) '김일성 광장', 정치적 령도의 공간이자 친인민적 축제의 공간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도 빈손으로 막을 내리자 김정은은 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북한 정권이 일관되게 비난해 왔던 미제국주의와의 회담을 백두혈통의 근원적 정통성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추진했던 것은 정치적 위험을 뛰어넘는 확실한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식 국가, 사회주의 문명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북 경제제재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야 했다. 이러한 김정은의 희망과 기대는 2018년,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2차 베트남 북미회

담까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은 김정은이 선택했던 공간은 바로 김일성 광장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완공된 ‘김일성 광장’³⁶⁾은 전후복구사업을 통한 도시 재건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최초에는 ‘중앙광장’으로 설계되어 시민의 광장, 혁명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듯했으나 완공된 해, 내각결정 제116호에 따라 ‘김일성 광장’으로 변경되면서 김일성이라는 지도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실제로는 패전의 지도자였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세계 최강의 제일주의세력과 대결하는 상징”이 되면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김일성³⁷⁾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절대적으로 만들어 줄 특별한 공간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³⁸⁾ 거대한 광장을 가득 메운 선전구호와 깃발,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군대 열병식과 군중의 환

-
- 36)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중앙광장. 평양시 중구역의 남산재동쪽기슭에 대동강을 면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작성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에 따라 1954년에 건설되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의 흐름의 정을 담아 이 광장을 김일성광장으로 부른다.” “김일성광장,” 『조선대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 37) 서동만은 한국 전쟁에서 북한의 패색이 짙어지고 미공군의 폭격과 파괴가 심해질수록 북한 군인과 인민대중은 오히려 김일성을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세력”과 대결하는 상징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김일성은 전쟁 전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서동만, “한국전쟁과 김일성,” 『북조선연구』(서울: 창비, 2010), 217쪽.
- 38) 황의택은 북한이 1950년대 전후 시대부터 국토건설에 있어서 상징체계를 새겨 넣는 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1953년 백두산 보전보 지역을 시작으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역사 발굴을 본격화하였고, 그 공간에는 기념탑, 동상, 기념비 등 조형물을 세워 상징적 공간, 즉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건설하였고 분석하였다. 황의택, “김정은 시대 중점 건설사업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29쪽.

〈그림 7〉 1960년대 중엽 김일성 광장



자료: “[화보] 평양의 어제와 오늘...“폐허에서 인민의 도시로,” news, 2020년 6월 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675914>(검색일: 2022년 9월 22일).

〈그림 8〉 1980년대 중엽 김일성 광장



자료: “[화보] 평양의 어제와 오늘...“폐허에서 인민의 도시로,” news, 2020년 6월 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675914>(검색일: 2022년 9월 22일).

호는 그 자리에 있는 인민대중은 물론이고 언론매체를 통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인민대중에게도 김일성 광장의 대주석 단 위에 올라선 김일성을 더욱 강력한 지도자로 보이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³⁹⁾

1970, 80년대에는 성공적인 유일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제라는 북한의 독자적 이데올로기를 인민대중에게 체화시킬 수 있는 공간 기획들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금수산의사당, 인민문화궁전, 2.8문화회관, 만수대예술극장, 김일성경기장, 봉화예술극장, 함흥대극장, 창광원, 빙상관, 과학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 청류관, 고려호텔 등 북한 각지에 다양한 현대식 공공건물들이 지어졌다. 이러한 공공건물들은 유일체제라는 독자적 이데올로기를 선

39) 당시 북한은 김일성 ‘영웅만들기’의 일환으로 김일성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가 출간되고 김일성 탄생을 기념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김일성의 고향 만경대 생가 및 일대 복원되고 항일전적지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김일성의 고향인 만경대와 김일성 이름을 딴 ‘공간’들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북한의 ‘이름 없는’ 공간들에 김일성의 상징성이 새겨졌다.

전·교육하는 실질적 공간이자 또한 유일체계의 우수성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후계자 김정일의 주도로 추진된 유일체계 시대의 공간 정책에 따라 김일성 광장에도 당대의 지향을 보여 주는 공간들이 추가되었다. 인민대학습당, 평양제1백화점⁴⁰), 그리고 김일성 광장의 중심축에 맞추어 동평양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건립된 주체사상탑 등이다. 이렇듯 김일성 광장은 유일체계의 전환이라는 북한 사회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 일반 국가의 지향을 초월한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독자성, 특수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김정은 시대, 남·북 정상회담(2018.4.27.)을 통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뒤이어 6월 12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기대에 차 있었던 김정은 정권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광장에서 거행되는 창건일 기념 군사 열병식을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하였다. 이날에는 개발 이후 매해 등장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과 사회주의 완성을 강조하는 지도자 김정은의 공개 연설도 없었다. 북한의 군사력이 총동원되어 강력하고 위협적인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고 권위적인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 줬던 공간인 김일성 광장은 이제 '변화할 준비를 끝내고 보편적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 광장은 김정은의 정치 지향에 따라 비교적 유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위협적인 국방력을 과시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임에는 변함이 없었다.

40) 1980년대 초 일제강점기 화신백화점 자리를 25배 규모로 개건 및 확장하였다.

이렇듯 북한의 독특한 특수성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공간인 김일성 광장이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정상국가들의 보편성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대비를 이루며 혼종화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에 들어서면서이다. 2019년 2월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는 2001년 제1차 대회 이후 18년 만에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 일군대회가 열릴 만큼 김정은 정권에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였다.⁴¹⁾ 뒤이어 터진 코로나 19 팬데믹(Corona 19 Pandemic)으로 이중 위기에 봉착한 김정은은 인민대중에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대한 이벤트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이벤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김일성 광장이었다. 그동안 가장 강렬한 정치적 국가 행사의 장소였던 김일성 광장이 ‘축제의 공간’으로 꾸며진다는 것은 그만큼 인민대중이 선명하게 김일성 광장의 변화를 통해 김정은이 던지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 광장이 최초로 인민대중을 동원의 대상이 아닌 관객으로 초대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공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공개된 것은 2019년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2020년 새벽까지 진행된 신년 행사를 통해서였다. 이 신년행사는 세 가지 점에서 이전의 신년행사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첫째, 이례적으로 조선중앙 TV를 통해 실황중계(생중계)되었다. 실황중계는 즉시성과 현시성을 가지고 “현장과 동일한 직관(直觀)적 태도와 반응을 동반”⁴²⁾하기 때문에 통치 권력

41) 2019년 4월 25일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뒤이어 6월 21일 시진핑을 초청하여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42) 박동혁·강내원, “텔레비전 생중계 뉴스의 포맷과 제작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59권(2017), 65쪽.

이 국민적 관심과 단합을 유도하기 위한 스포츠 행사나 축제 행사에서 선호하는 방송기법이다. 둘째, 야외무대에서 진행되어 원하면 누구든 관람할 수 있었다. 실내극장에서 초대반은 일부,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년행사가 김일성 광장 야외무대로 나오면서 인민대중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이 무대에는 북한의 인기 가수, 무용수 등 특정계층이 아니면 실제로 볼 수 없었던 공연예술인들이 총출동하여 인민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관람자들은 야광봉을 흔들고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보편적 정상국가들과 다르지 않은 신년 풍경을 만들어냈다. 셋째, 최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쇼(Show)’로 꾸며졌다. 카운트다운 후 1일 0시와 함께 시작된 화려한 불꽃놀이, 그리고 무대 뒤로 날아오른 드론은 과학기술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해 가고 있는 김정은식 국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김일성 광장을 완벽한 ‘축제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로 과거의 적으로 사라지길 원했던 미국이라는 존재가 다시금 적대적으로 환기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국가 지향에만 힘을 싣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감은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상기시켰고 이에 대응해 왔던 혁명의 경험들은 다시금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인민대중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지도자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김일성의 사례와 같이 인민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획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도된 새로운 기획은 건국 이래 최초로 기념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했다는 것이

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성은 사람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 주고 조명이라는 장치를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의 주제를 선명하고 화려하게 보여 준다.⁴³⁾ 군무위원회 연주단과 조선위원회 군악단이 김일성 광장으로 들어서는 군부대 입장에 맞춰 생음악을 연주한 것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회색 양복을 입고 나타난 지도자 김정은의 모습도 색달랐다. 특히 LED 조명을 장착한 전투기들의 에어쇼와, 다시 등장한 대형 전략무기의 행렬은 “세계 최강의 무기”를 바탕으로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국가, 그리고 물려서지 않는 단호한 지도자의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기획이었다.

이렇듯 김일성 광장은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역동성, 대외적 충격,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의 국가 지향, 독특한 북한의 정치구조 등이 서로 부딪치면서 때로는 정상국가로서의 보편성이, 그리고 때로는 수령제라는 독특한 북한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공간으로 혼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종화가 일정한 질서와 규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 광장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변화만큼이나 하나의 국가 이벤트 안에서도 복잡한 혼종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2020년 새로운 위기에 봉착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광장을 통해 인민대중에게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비가 온다고 남의 집 처마에 뛰어들 우리 인민이 아니고, 병진의 길이 힘들다고 남의 손에 인민의 운명을 내맡길 우리 당이 아니”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처럼 ‘인민대중을 위해 사회주의 문명국은 실제적 성과를 내며 계

43) 홍정수·백성우·정간환, “야간형 축제와 관광이벤트가 도시재생지역에 미치는 영향 인식 비교분석: 군산과 인천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25권 4호 (2021), 419쪽.

속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인민대중은 일치단결하여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동력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김일성 광장은 향후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으며 변모해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나가며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하며 이어진 각 정권의 공간 전략은 매우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기획되었다. 1990년대 말까지 북한 사회를 지탱하였던 가장 강력한 기제는 인민대중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이 이데올로기의 완성을 지향하는 국가는 봉건사회와 식민지를 겪으며 인민대중이 염원하고 선망했던 '자신이 주인이 되는 평등한 사회'가 실현된 유토피아였다. 선도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 둘 실리를 위해 방향전환을 모색할 때,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이데올로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제국주의에 맞선 혁명의 과업 계승과 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가 여전히 높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집권한 시기 북한의 인민대중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지향에 맹목적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었다. 오랜 시간 유일체계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경제적 빈곤만 가속되었고, 한계에 직면하자 체제의 벽을 넘어 들어 온 금단의 시스템들이 오히려 사회를 지탱하는 광경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민대중은 2000년대 이후 시장화·정보

화가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현실적으로 얼마나 일상이 바뀌었는지도 체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김정은 시대에 인민대중의 기대와 요구는 과거의 지도자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인민대중의 기대와 요구는 더 이상 조롱받지 않는 국가, 풍요로운 일상을 향유 할 수 있는 '새 시대'였다.

달라진 사회적 조건 앞에 선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세력 기반이지만 동시에 또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인민대중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새 시대'의 모습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각성한 인민대중은 세습 정권에 대해 과거만큼 절대적 신뢰를 보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대와 달리 정권을 이어받았다는 것만으로 인민대중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권과 동시에 맞이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야 했던 김정은은 자신의 국가 비전을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검증된 전략, 공간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선택된 상징적 공간들은 김정은 정권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 비전인 보편적 국가로의 지향과 수령체제라는 북한의 특수성을 동시에, 그리고 강렬하게 드러내는 기획을 통해 혼종화되어 인민대중을 설득하고 있다.

김정은이 인민대중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발전목표로 내세운 '사회주의 문명국'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 주기 위해 선택했던 전략적 공간은 바로 금수산태양궁전, 려명거리, 그리고 김일성 광장이었다. 금수산태양궁전과 김일성 광장은 수도 평양의 상징적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언제나 주목받아 온 공간에 자신의 국가 지향을 뚜렷이 새겨 넣음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국가 비전의 실체를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

시에 이 공간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지도자, 백두혈통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도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은 역사적 소명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상기시키는 금수산태양궁전과 김일성 광장은 백두혈통인 김정은이 태생적으로 갖게 된 강력한 정치적 자산임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공간 기획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결정판, '새 시대'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던 려명거리에서도 발견된다. 려명거리는 어떤 국제제재에도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백두혈통의 혁명 정신과 위대함을 이어받아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사회에서 상징적 공간을 활용한 통치 전략은 체제 유지와 정권의 영속성을 위해 매우 권위적이고 치밀하게 기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와 통치 권력의 특성, 그리고 인민대중의 의식 수준은 큰 변수이다. 때로는 통치 권력이 특정한 전환점의 마련에 실패하여 사회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 인민대중이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각성되면서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한다. 이렇듯 통치 권력과 인민대중은 그 사회가 어떤 형태와 구조이든 간에 다양한 내외부적 자극과 힘, 그리고 자신의 특성과 충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한 사회를 이끌어 간다. 통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선점한 정치 집단이라면 인민대중은 자신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집단의 힘을 모의하고 탐색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특정 사회를 만들어 가는 통치 권력과 인민대중의 상호연관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⁴⁴⁾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북한 정권에 의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졌던 통치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다른 관점의 해석 역시 필요하다. 통치 전략으로만 해석되었던 공간은 통치 권력의 일방적 기획이 아니라 각 시대, 인민 대중의 의지도 담보되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때로는 새롭게 발견되는 공간들은 이들 북한의 지도자가 인민대중의 ‘힘’과 ‘역동성’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움직인 결과물이다. 특히 김정은은 빨라진 북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같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인민대중의 역동성, 능동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숨겨져 있었던 주도권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시대의 공간은 독자적 유일체제로 작동되는 자부심 어린 국가성과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보편적 국가로의 열망이라는 인민대중의 이중적 욕망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더욱 혼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접수: 2022년 10월 25일 / 수정: 12월 5일 / 채택: 2023년 3월 6일

44)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는 크게 드러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북한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전한 정보화 역시 비공식 사회 영역에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사회 분야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측면보다는 북한 사회 영역에서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지목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박영자·조정아·홍제환·정은이·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15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건축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조선대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2) 신문

『로동신문』, 2010년 1월 1일; 2011년 4월 16일; 2012년 6월 21일; 2013년 6월 20일; 2013년 1월 1일; 2013년 4월 2일; 2013년 5월 1일; 2013년 4월 16일; 2015년 11월 4일; 2016년 3월 19일; 2017년 4월 14일; 2018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2020년 10월 11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르페브르, 앙리(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14).

푸코, 미셸(Michel Foucault),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옮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박영자·조정아·홍제한·정은이·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사회 8대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18).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서울: 효형출판, 2011).

하이러, 빌헬름(Wilhelm Reich), 『파시즘의 대중심리』, 황선길 옮김(서울: 그린비출판사, 2006).

2) 논문

김창희, “북한의 백두혈통을 위한 역사 만들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1호

- (2017), 147~178쪽.
- 박동혁·강내원, “텔레비전 생중계 뉴스의 포맷과 제작방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제59권(2017), 60~72쪽.
- 서경원, “죽음의례의 문화적 기억과 정동의 배치: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죽음 기억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24권 4호(2021), 35~83쪽.
- 서동만, “한국전쟁과 김일성,” 『북조선연구』(서울: 창비, 2010).
- 안창모, “역사도시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화 과정: 도시구성과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80권(2020), 1~36쪽.
- 이유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기 북한건축의 특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종점·정현주·김희정,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북한의 권력에 관한 연구: 1953~1970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성립 시기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2호(2021), 45~85쪽.
-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1호(2021).
- 이현주, “북한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2호(2011), 291~325쪽.
- 전상안·김미영·조은희, “국가 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제50권 1호(2015), 21~40쪽.
-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2010).
- 정은희,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을 통한 광장의 공간생산과정 분석 연구”(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진은진, “전설의 현대화와 공포의 전략: 군대괴담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68집(2017), 439~472쪽.
- 황의택, “김정은 시대 중점 건설사업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홍정수·백성우·정간환, “야간형 축제와 관광이벤트가 도시재생지역에 미치는 영향 인식 비교분석: 군산과 인천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25권 4호, 417~437쪽.

3) 기타 자료

“북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김정일 석고상 변신,” 연합뉴스, 2013년 8월 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10596>(검색일: 2022
년 9월 18일).

“북한,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김정일 동상 ‘컬러’로 교체”, 연합뉴스, 2015년 7월
8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716954>(검색일:
2022년 9월 18일).

“[화보] 평양의 어제와 오늘... “폐허에서 인민의 도시로,” news 1, 2020년 6월 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675914>(검색일: 2022
년 9월 22일).

The Formation of Governing Space and Strategies in the Kim Jong-un Era: Hybridization of the Supreme Leader System and Socialist Civilization

Kim, Jini(Konkuk University)

If the governing power is a political group that actively wields potent power for its own political exploits, the popular masses are a political group that contrives and explores the power of the group for their own safe and prosperous daily life. The interconnection between power and the masses is inevitable. In this regard, new and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the governing space, which has been strategically crea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re needed. From era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to Kim Jong-un, the spaces that change in each era and are sometimes newly discovered are the result of these leaders astutely capturing and moving the ‘power’ and ‘dynamism’ of the popular masses. In particular, Kim Jong-un takes seriously the dynamism and initiative of the popular masses, who are accelerating together in a rapidly changing North Korean society, and pays attention

to the popular masses' hidden initiative. As a result, the 'space' of Kim Jong-un's era is expected to become more hybrid, reflecting the masses' dual desire to become a proud nation that operates as an independent monolithic state and a universal socialist civilianization.

Keywords: the masses, Kim Jong-un, hybridization, space, North Korea